

여수시, 민원 해결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운영

1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순회
민원 상담·사후관리 현장 방문
단순 민원 사항 등 현장서 답변
조사 필요 사항 60일 이내 통보

여수시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
만’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여수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
민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민들은 읍면동 별 상담 일정에 맞춰
자신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옴부즈
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적 문제로
부터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중앙동(10일)을 시작으로 △화
양면(22일) △쌍봉동(23일) △월호동·
국동·대교동(28일) △소라면(30일) △
율촌면(11월 5일) △돌산읍(11월 6일)
△여서동·문수동(11월 7일) △시전동
(11월 8일) △여전동(11월 11일) △화

정면(11월 12일) 등을 방문해 민원 상담
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 현장예약하면 된다. 개별상담을 통
해 단순 민원 사항 등은 현장에서 즉시 답
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
으로 접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여수시가 위촉한 2명의 위
원으로 구성되며,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

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
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7일 제4기 시민
옴부즈만으로 임채성·윤혜옥 위원을 위
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의 현장성을 강화
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상
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한예중, 인공지능 기술 활용
구례 주제 애니메이션·노래 만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만든
구례 애니메이션과 노래가 관심이다.

학생들은 지난 8월 구례군과 한예중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레지던시캠프에
참가해 1주일간 구례에 머물렀는데, 이
때 느꼈던 구례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을
애니메이션과 노래에 담아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한예중 학생들
과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물은 정겹고 아름다운 구례의 모습을 잘
표현해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
다.

특히 구례를 떠나는 학생들의 아쉬움
을 담은 ‘안녕 구례’ 노래는 ChatGPT와
SUNO AI로 만들어진 곡인데, 인공지능
이 마치 구례를 직접 여행이라도 한 듯 힐
링과 감성 여행지 구례의 이미지를 매우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과 노래는 학생들
의 동의를 얻어 구례군 홍보를 위해 사용
될 계획이며 구례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gurye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강형원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장
‘치매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강형원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장
이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제17회 치매극
복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강형원 센터장이 이끄는 전라남도 마
음건강치유센터는 2023년 전라남도 치
매관리산업 발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
상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102명의 치매 환자 및 가
족을 대상으로 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마음치유 프
그램을 운영하며 건강검진, 아로마 두피
케어, 노인학대 예방교육, 산림치유, 요
가, 온열테라피, 한의 치료 등 다양한 활
동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강 센터장은 인지장애 한의중점
연구센터(보건복지부 주관) 센터장으로
서 국가 치매 사업의 정책, 임상, 연구에
기여해 왔다.

강형원 센터장은 “한의학적 치료 기
술이 인지장애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
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
로 만족도 높은 통합의학 기반 프로그램
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통령 표창은 강형원 센터장의
치매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
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로, 향후 치
매 관리 분야에서 한의치료기술의 역할
이 더욱 기대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올해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발표
김완식·정일랑 2명 수상

여수시가 올해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2인을 최종 발표했다.

수상의 주인공은 △사회복지부문 김완
식 코리아월드서비스㈜ 대표이사 △향토
방위부문 정일랑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여수지회장 등 2명이다.

김완식 대표이사는 2009년부터 읍면
동 각 지역을 순회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 등 끊임
없는 선행으로 지역사회 환원에 앞장
서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일랑 지회장은 월남전 참전 국가유
공자로, 2017년부터 선양사업을 추진하
여 유한 계승에 앞장섰으며 ‘전사자 유가
족 찾기’ 등을 통해 전사 국가유공자의 명
에 회복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수상자
에 선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8월 2일까
지 2개월간 7개 부문에 후보자를 접수했
으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검증
과 토론을 거쳐 최종 2인을 선정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 여수시민의 날 기
념식을 통해 선정된 2인에게 상패를 전달
할 예정이며, 유튜브 ‘여수이야기’로 현
장을 생중계해 참석하지 못한 시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10월 ‘광양여행 가는 날’
참여자 선착순 모집

광양시가 그 달의 가장 특색 있는 코스
를 엄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광양시
티투어 광역코스 ‘광양여행 가는 날’ 10
월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10월 ‘광양여행 가는 날’은 천고마비의
절정을 장식할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
이축제’와 연계해 11일과 13일 총 2회 운
영한다.

차량은 오후 2시30분에 광주 유스퀘어
3번 출을 출발한다. 광양에 도착한 참여
자들은 광양읍권의 남파랑길을 걸어본
후 광양예술창고, 전남도립미술관 등 관
람에 나선다. 저녁에는 광양전통숯불구
이축제가 열리는 광양불고기특화거리로
이동해 식사를 해결하고 축제를 즐긴 뒤
오후 9시50분에 광주 유스퀘어에 도착하
는 것으로 일정이 종료된다.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 이용요금은 1
만5000원이며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등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남도한바퀴 휴
페이지(누리집) 시티투어 코너 ‘광양여
행 가는 날’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전화(062-360-8502)로도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저소득층 자활 성공 위해 최선”

고흥군은 고흥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
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
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증감
률,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증감 및 유지
율, 사업단 매출액 증가폭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진행됐다. 그 결과 고흥지역자
활센터가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인

센티브 지급계획에 따른 추가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성과는 자활
센터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활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만
들어진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고흥군 자
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흥지
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
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저소득층
자활복지 증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
부했다.

오군이 고흥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
업 참여자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자활센터가 되도록 종사자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할 것”이
라며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단의 발전
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한편 고흥지역자활센터는 식물 카페,
누룽지·조미김 제조 판매 등 9개 자활근
로사업단을 운영해 45명의 저소득층에게
일job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자산형성 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과 자활 의욕 고취에 앞장
서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흥군, 내년도 복지 혜택 확대

“군민 기초생활 보장 노력”

고흥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으
로 6.42%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
대 인상 폭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
소득층의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4
년 71만3000원에서 2025년 76만5000원
으로 최대 7.3% 인상되어 월 5만2000원
이 추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

년 183만4000원에서 2025년 195만
1000원으로 최대 6.4% 인상돼 월 11만
7000원이 더해진다.

특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배기량 2000cc 미만이거나
500만원 미만의 승용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 이에 따
라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지
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
자 기준이 연 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반재산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
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생계급여 지원 기
준액 인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적으로 발굴하고,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달린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읍·면에 플래카드를 게시하
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